

세 정부 들어 공인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일어난 27건 정도의 종교편향적 사건에 대해 전 불교도가 8.27 범불교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각종 언론매체의 머리글에서 '성난 불심...' 운운하는 제목으로 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도 괜찮을까?

하찮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왜곡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알다시피 부처님이 지상과제로 삼았던 해탈은 탐욕·성냄·어리석음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따라서 불심은 '성냄' 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당연히 불심에 '성냄'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교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말이다. 일시적으로 왜곡된 말이 상용화가 되어버릴 때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접하는 단어들 중에 '소란'을 뜻하는 '야단법석'이나 '골장'의 뜻으로 변해버린 '이판사판' 등은 불교용어였으나 일상적으로 쓰이면서 본래 뜻이 변화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과잉 검문검색이 불법승 삼보 중에서 승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다면 '성난 불심' 운운은 불심(佛心)에 대한 모독에 해당된다. 만약 불심이 성이 나는 일이 있다면 불교계는 최후의 보루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면서 유희사태가 일어났던 티베트의 경우에도 그 단서



불자 세상보기

이상호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성난 불심...’이란 표현부터 왜곡됐다

는 승려에 대한 폭력사태로부터 시발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언론에서는 티베트명정부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매우 이성적이고 사려깊은 태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었다. 비록 우리 불교계가 현재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 대응태도로 비취지는 '성난 불심' 등과 같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당연한 주권 행사를 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시위나 범불교대회도 그 자체가 결코 감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소통을 위한 이성적 태도의 마지막 수단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교계의 마음이 상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에 그친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던 불교계가 범불교대회를 통해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적 태도와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연관시켜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양하고자 하는 등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이나, 또는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특정종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있다. 범불교대회는 전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명백히 강조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종교편향금지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서 '종교편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법제화한다면 불교계의 본래 뜻과는 달리 오히려 불교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불교계는 타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명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종단이나 종파를 떠나서 더욱 세심한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종교편향이라는 역지를 부린다면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종교편향금지법의 입법화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그 핵심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불교계에서도 입법화 과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결코 큰 일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먼 미래의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社說

포교 등한시한 업보도 살피자

을 여름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편향'이란 말이 많이 오고 갔다. 불교계는 지금도 종교편향의 멧을 견어내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 범불교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의 일부인 사회에는 널리 전달되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외면하는 분위기다. 의례적인 유감표명으로 해결하려는 듯하다. 물론 그런 인상 때문에 불교계는 더 분노하고 있다.

외환이 생기면 안쪽을 들여다보는 게 사람 사는 도리다. 불교계에서도 종교편향과 관련한 울분은 한 쪽에는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답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원로 스님은 "반세기가 넘도록 포교에 등한해 온 업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식인은 "불교계가 이미 소수집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며 "불교계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볼 때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종교편향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현실적인 분노와 함께 성찰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편향의 사례들 속에는 불교계가 먼저 반성해야 할 개연성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에 불자가 얼마나 포진했는가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정작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계가 인재봉사를 잘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타종교의 극성맞은 선교를 비난하는 동안 포교의 적극성도 함께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과거의 시간이 오늘의 종교편향이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뼈아프게 되짚어 볼 때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명청수'

9월 10일 오후 어청수 경찰청장이 동화사를 방문했다가 혼쫓아 났다. 대표종단의 총무원장들과 대구경북 지역 스님들이 2차 범불교대회와 관련한 모임을 갖는 자리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 썰렁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어청수 청장의 동화사 방문은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감행된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청수의 동화사 방문은 몇 가지 상징성을 띤다. 우선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대쪽에서 여전히 불교계를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난다. 알보는 상대가 아니라면 불속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불속 손을 내밀 때는 그 손을 잡아 주리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다. 오만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관 스님에게 집착 한다는 것은 불교계의 퇴진 요구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게 보인다. 물론 불교계의 대표성을 지닌 분이 지관 스님이니고 활달한 불심검문을 받은 것도 지관 스님이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의 분노는 불교계 전체의 것이다. 상징적 인사와의 화해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와의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즉흥적인 동화사 방문은 '명청수'였다든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어청수의 사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되었다. 문제를 푸는데 있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계속 '악수'를 두게 된다. 한발 물러서서 상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들을 살피지 않는 한 동화사 방문 같은 수를 또 두게 될 것이다. 어청장이 택할 수 있는 묘수는 많지 않아 보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이젠 웃음을 나누어 줄래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⑧1 고통 속에서 찾는 웃음

있었는지 생각하고 내일은 마저 버리자 하면 서 하루를 지내는데 이렇 또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네요. 더욱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형에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띄워 보냈습니다. 힘드신데도 저희 형제를 잊지 않고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형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다가도 형 생각에 웃음이 나고 그래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웃음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아버지는 엄마하고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엄마를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러던 저희 둘은 너무 무서워 떨면서 울고요, 엄마를 지키려고 말라다가 대신 또 맞고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너무 싫었어요. 학교에 가기도 싫었고요. 학교 가서도 저녁에 아버지에게 맞는 엄마 모습을 생각하면 아

무 생각도 안 나고 도망가고만 싶었지만, 우리 엄마니까 또 집에 가서 말려야 하고, 저도 맞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자 엄마는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매 맞는 엄마 모습은 너무 불쌍하고 저같이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후 저희 형제는 집을 나와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나가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하니 형이나 저나 웃음이 나와요. 웃을 날도 있었구나 생각하니 신기해요. 이 웃음을 어떻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래요. 나가서 인정받기가 쉽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과자라는 이름이 붙어 더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어차피 인생은 고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에서 웃음을 찾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해 선생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형제를 좌악의 구렁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선생님같이 좋은 분들들을 보내 주셨으니 이보다 큰 인연이 어디 있었습니까. 욕심을 버려서 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삶으로 지난 날의 좌악으로 쌓은 업을 조금씩 줄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 선생님들께 받은 따뜻한 사랑이 저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빨리 나가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경도 배우고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요.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냥 보내지 않고 뭐라도 깨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항상 부처님께서 지켜주시 거예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00울림

부처님, 그를 보면 '인과나 업보니 불이지 마라. 고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에 매달려도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제를 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다운 불자로서 마음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자성부처님께 간절히 기원 올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추석이다 명절이다 하면 가족 친척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겠지만 그럴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서 한번도 가정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가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20대의 한 법우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절망하여 한 때는 고도소안에서도 자살을 시도하였었다. 그 후 부처님 법을 만나 어두운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선생님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바쁘셔서 쉬실 시간도 없겠네요. 그래도 선생님 마음은 하나도 힘 안 드시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이 많아 하루 종일 기방을 접어도 일을 다 못 끝낼 정도예요. 방으로 돌아오면 책이라도 보려고 해도 피곤 있으면 잠이 와서 금방 덮고 자 버려요. 선생님께서는 더 힘드셔도 노력하시는데 저는 잘 되지가 않네요. 요즘도 가끔씩 벼내 못 이기는 게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느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이세요. 사실 겁이 나요.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런 모습 버리지 못하고 나가면 선생님들 실망시켜 드리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나를 버리자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 과연 오늘은 얼마 만큼 버릴 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규칙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 의식적 조성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발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 Fax 0311768-8413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번이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져야만 하는가?
- ④ 대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에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 혜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